

교육은 사회 발전의 근본



강성모 UC머세드 총장이 한국 뿌리 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한국학교 교사들에게 21세기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임을 강조했다.

또한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의 자민족 정체성 또한 근본이 되고 있음을 당부했다.

북가주 한국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13기 교사 집중 연수회가 지난 13일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회장 최미영)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과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원장 김신옥) 후원으로 열린 교사 집중 연수회는 28개 한국학교에서 148명의 교사들이 참석했다.

강성모 UC머세드 총장 외에도 류승철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현 USC 방문교수)의 강연도 진행됐다.

또한 한국학교 교사의 시범 수업도 눈길을 끌었다.

시범 수업에는 유치반(이미영 SV 한국학교), 초급반(진현숙 임마누엘 한국학교), 중급반(조철현 모퉁이돌 한국학교), SATII 한국어반(황희연 세종한국학교)를 비롯해 역사 문화 수업도 진행됐다.

또한 시범 수업이 끝난 후에는 평가 및 수료식도 가졌다.

이날 강성모 총장은 약 2시간에 걸친 강연을 통해 지난 달 17일 머세드 대학 졸업식 행사에서의 미셸 오바마 영부인 참석 배경에는 전교 학생들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단합된 힘만이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길”임을 주문했다.

류승철 교수도 바람직한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과 관련, “학생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해와 진정한 관심으로 대할 것”을 강조하며 “일관성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민기 기자

<http://www.koreadaily.com>

POWERED BY **Jo!ns**AMERICA